

합리적 구조조정과 장기발전 방안(정극원 교수)에 대한 토론문

최 종 필(골프산업학과)

한국의 대학사회에도 이제 올 것이 오고있다. 말로만 듣던 대학파산이 대학사회를 급격히 엄습하고 있다. 이미 교직원 봉급조차 못 줄 만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 경영부실로 강제 폐쇄된 대학도 의외로 많다. 학생등록금으로 간신히 연명하거나 전액 장학금을 주고 외국인 학생들을 데려와 정원채우기에 급급한 대학도 부지기수다. 저출산이 낳은 한국대학의 현주소이다.

대학사회가 무엇보다 '학령 인구감소'로 가장 큰 충격을 느낄 것이다. 대입 정원이 대학 입학자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정원이 16만 명을 넘어서 정원미달 대학이 속출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은 더욱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온실 속에 안주하는 대학이 많다. 이미 너무 늦은감이 많지만 대학 구성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언제 벼랑으로 추락할지 모른다.

모 국립대학 사례는 황당하다. 이미 4년째 총장이 공석중이며 학위수여식에서도 총장을 찾아 볼 수 없다. 선장이 없는 배가 풍랑이 거센 망망대해를 건너는 격이다. 4년 전 당시 총장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이 대학은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총장 임용을 둘러싸고 심한 내홍을 겪어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1순위 후보자 임명 제청 거부 이후 학내 혼란과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최근 기존 후보자를 재심의해 총장 임용 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본부 보직자 등 학내에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 회장은 교육부 앞에서 삭발까지하며 총장 공백 장기화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조차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눈에 보일 리가 없다. 비싼등록금을 내고 미래를 위해 젊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익집단의 주도권 싸움과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에 학교는 경쟁력을 잃고 수면 아래로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상당수 지방대학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지금도 입학정원을 못채우는 대학이 80개가 넘는다. 이제 대학구조조정은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몇해 전 감사원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한 4년제 대학(231개교)중 78개교, 전문대학(167개교) 중 67개교 등, 총 145개 사립대가 2023년도엔 폐교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이중 132개교가 지방대학이 폐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였다.

지금부터 과연 어느 대학이 간판을 먼저 내릴 것인지 묻는다면 대답은 뻔하다. **학생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일 것이다. 대구대학교도 '학생이 행복한 대학'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냄비 속에서 물이 끓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2018년 봄학기를 맞은 대구대학교 캠퍼스에도 그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 토론 내용 I : 대학입학자원의 급감에 대구대학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장예진 기자 / 20131017
@yonhap_graphics(트위터)

YONHAP NEWS



I-1 : 발제자께서는 올해 8월 발표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우리대학의 살길은 I 유형인 자율협약대학에 진입(1년에 30원억의 지원을 받게 되면 4년간 120억원의 기부금조성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최근 3년간 868명(대구가톨릭대 396명, 계명대 660명, 영남대 617명)을 감축하여 타 대학에 비해 최소 200명 이상을 더 감축한 것과, 학생총원률(94.4%)로 환산하면 3년 간 감소된 실제 학생정원은 1,800명(등록금 적자액은 약 123억) 정도로 인근 타 사립대학교보다 신입생 정원을 감축하면서 많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대비 우리 대학이 정원을 100% 채우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토론 내용 II : 대구대학의 구조조정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II-1 : 대구대학교는 지방대학이라는 한계, 교통 접근성의 문제, 높은 중도탈락률, 재단전입금 제로 등 대학발전 환경이 최악인 여건가운데, 다음 <표 1>과 같이 2017년 대학본부가 구조를 조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표 1. 2017년 대구대학교 구조조정 내용

개 요	변화 추이	상세 내용
단과 대학	13개→11개	- 법과대학 → 학부 - 인문대학+기초교육대학 → 인문교양대학 - 자연과학대학+생명환경대학 → 과학생명융합대학 - 미래융합대학 신설
모집 중지	6개 학과	- 독어독문, 골프산업, 물리학, 산업경영공학, 러시아어과, 환경교육
학과 통합	3개 통합 2개 신설	- 통합 : 한국어문학, 생명과학, 창조융합학부 - 신설 : 지구과학교육 신소재에너지공학
직제 개편	6개팀 통폐합	- 폐지 : 직원역량개발센터, 국책사업지원팀 등 - 통합 : 기획팀+평가분석팀, 구매팀+관재팀, 시설팀+생명안전캠퍼스팀

위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7년 대학구조조정 내용을 잘 살펴보면, 대구대학교에 적합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육부의 구조조정 틀에 맞추어, 즉 조정 시늉만 한 편제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조정에 대해 발제 교수님께서서는 대구대학의 구조조정 적용 기준으로, 1) 수익성과, 2) 대학의 정책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2023년도 대학입시에 있어서 대학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과가 되든, 학부가 되든 학생모집을 정원대비 100%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학생모집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과라면 어떠한 학과라도 이제는 과감히 정원 감축이나 모집중지를 해야만 할 것이며, 학생모집이 가능하다고 예측되는 학과는 한시적이라도 모집정원 증원을 통한 안정적인 대학재정 확보만이 대구대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이후로도 대구대학교가 대학입학정원 100% 확보를 위해 대학구조조정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I-2 : 또한 발제 교수님께서서는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서 전투병(학과폐지와 입학생 감축)식의 구조조정 지양과 교수들의 신분보장(직원들은 아직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다) 등 현재의 구성원중 그 누구에게도 '신분상 불이익의 제로화'라는 확고한 명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의미는 '죽어도 같이죽고, 살아도 같이살자'라는 좋은 뜻으로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 같이 망하자'로 이해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50대 중반 이상의 교직원들이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현재의 체제 유지가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20~40대 젊은 교직원들에게는 급여 삭감은 물론 신분보장 조차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이후 대구대학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게되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기본 임금피크제 도입, 생존을 위한 구조 및 편제조정(군살제거), 그리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통해 생존을 위한 대구대학교만의 경영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가장 어려운 대학위기(2018년~2024년)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 교수님의 주장은 금년부터 당장 쓰나미처럼 밀려올 위기상황에 대해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시고 현재 구성원의 희망사항에 부합하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듯한데,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토론 내용 III : 2024년 이후 최악의 대학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표 2. 외부발전기금모금 내역표(직접성 일반기금)

항 목	금 액	모금이행 내역
1.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	300억원	동문주축 참가인원 약 15,000명
2. 명예 총장제 등	20억원	저명인사 등
3. 기업체 후원금	100억원	전국 기업체 등
4. 지정강의실제	10억원	퇴임교수 등 약100명
5. 가족회사 후원금	50억원	총 1,484개
6. 경상북도 향토장학금	20억원	2천만원 × 23개시군 × 4년 (18억원+2억 추가)
7. 정부일반재정지원금	120억원	30억원×4년
8. 외국인 유학생 유치	90억원	현재에서 약 500명 증가 유치(4년간 총 2,000명)
총 계	710억원	

Ⅲ-1 : 발제 교수님께서서는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단기대응(4년 이내) 방안으로, 일반발전기금을 통해 최소 500억의 예상 모금을 할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셨는데, 최근 기업환경이나 개인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재학생들의 중도탈락 등으로 대학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대학발전기금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문제는 대구대학교에 오래 재직한 분일수록 교수님이 제시한 발전기금 모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의 대구대학의 연간 모금액을 생각해 보면 항목 7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목표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각 항목별로 발전모금 방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다소 쉬울 것 같습니다.

Ⅲ-2 : 발제 교수님께서서는 현재 대학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중도탈락률(대구대학은 년 1,800명으로 등록금 적자 약 123억)로 보셨는데, 이러한 대학재정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원의 해외유학생 유치(약 1,300명 유학생 유치)를 꼽으셨는데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현성 있는 유치방안이라 봅니다.

이미 해외유학생 유치도 경쟁구도에 이른 현시점에서 대구대학교가 타 대학(수도권은 물론, 부산경남 지역, 호남지역 등)에 비해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인프라 및 지리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대구대학에서 어떻게 유학생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내용Ⅳ :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 제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얼마전 대학구조평가과정에서 불거졌던 재단전입금 문제는 교직원들의 기부(교수 약 54%, 직원 약 91%?) 금액(모금액 2억 9천)으로 재단전입금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시방편으로나마 재단 전입금 문제를 일단 봉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인 대구대학에서의 운영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운영 주체인 정이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운영 주체는 모든 운영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하는 책무를 갖는데, 총장선거에서 자리를 차지한 집행부들이 마치 자기들이 승리자인냥 주인 행세를 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않는 사례들을 우리는 다수 보아 왔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질 수도 없고 지지도 않는 임시이사 체제가 아닌 교육부의 대학 정이사 규정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정이사 체제 하에서 대학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 교수님께서도 '재단 전입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있어야 학교재정의 건전화는 물론 학생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금후 대구대학교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00년, 200년 지속적인 대학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대학교 정상화에 대한 의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 집단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득권 중 하나로 꼽힌다. 학자가 갖는 권위와 교수 사회의 폐쇄성이 맞물려 대학은 ‘혁신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학과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도 전공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수들 반발에 좌절되기 일쑤다. 교수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은 학내 갈등으로 이어진다. 대학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 교수회가 성명서로 맞불을 놓고, 학생들은 본관 점거로 대응하는 식이다. 기싸움에 지쳐 결국 구조조정을 포기한 대학도 많다.

지난해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대, 성심여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등은 학과 통폐합을 검토하다가 교수 등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연이어 좌초되는 학과 구조조정

연도	학교	원안	결과
2015년	한국교원대	구조조정 위해 입학 정원 10% 감축	교수·학생 반발로 철회
2016년	성신여대	학과 통폐합	교수·학생 반발로 철회
2017년	동덕여대	학사구조 재편 및 학과 통폐합 계획	교수·학생 반발로 철회
2017년	서울여대	하위 15% 안팎의 학부·학과 통폐합	교수·학생 반발로 철회
2018년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와 임산생명공학과 통합	교수·학생 반발로 무산

2020년 고교 졸업자수 약 57만 여명, 2021년 약 52만 여명, 그리고 2022년 약 45만 여명, 대구대학교에 불어 닳칠 소용돌이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의 미래를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정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